

#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협력센터

##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3월 1~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환율

①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구 분	내 용	비 고
환율	1 USD = 3.75 SAR (Peg system)	(2025.3.10.) Saudi Central Bank (SAMA)
기준금리	5.00 %	(2024.12.18.) Saudi Central Bank (SAMA)

-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리얄화의 가치가 달러화 가치에 연동되는 달러화 페그제(peg system)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조정으로 리얄화의 통화가치 유지
- 사우디 중앙은행(Saudi Central Bank: SAMA)은 2024.12.18.일자로 기준 금리로 사용되는 Repo Rate를 0.25% 인하 발표함

② 국제유가 동향

구 분		유가	변동 (전일대비)	비 고
유 가	브렌트유	70.00	- 0.36	USD/bbl
	WTI	66.65	- 0.39	



< 자료: Oilprice.com (2025.3.10.) >

(단위: USD\$)

구분	2.24	2.25	2.26	2.27	2.28	3.3	3.4	3.5	3.6	3.7
Brent	74.78	73.02	72.53	74.04	73.18	71.62	71.04	69.30	69.46	70.36
WTI	70.70	68.93	68.62	70.35	69.76	68.37	68.26	66.31	66.36	67.04

※ 기준: Brent (25.3월 계약분), WTI (25.3월 선적분)

### 3 시장 동향

#### ○ OPEC+, 계획된 4월부터 증산 결정<sup>(Saudi Gazette 3.3)</sup>

- 3.3일에 개최된 OPEC+ 회의에서 당초 계획대로 4월부터 원유 증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이번 결정은 8개 OPEC+ 회원국들이 글로벌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을 검토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마친 후 발표됐으며, 성명에서 점진적 증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석유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증산은 138,000bpd로 추정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감산 기조를 완화하는 것으로 OPEC+에는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이 포함됨
- 또한, 8개국은 지난해 4.3일에 개최된 제53차 Joint Ministerial Monitoring Committee (JMMC)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추가 자발적 감산 조치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고, OPEC+ 국가들은 2024년 1월 이후 초과 생산된 물량을 OPEC 사무국에 제출한 보상 계획에 따라 2026년 6월까지 완전히 상쇄할 것을 확인함
- 한편, 생산한 국가들은 보상 기간의 초기 단계에서 보다 많은 물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보상 계획을 조기 이행하는데 동의하였음

#### ○ PIF,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MoU 체결<sup>(MEED 3.6)</sup>

- PIF는 미국의 골드만삭스 자산운용(GSAM)과 MoU 체결을 통해 주재국을 포함하여 GCC 전역에서 사모 대출과 공모주를 포함해 신규 투자 전략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됨
-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번 MoU는 사우디 자산운용 부분을 강화

하고, 지역 및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규 전략은 GCC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비즈니스에서 상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과 부채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모주 전략은 사우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사우디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주식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밝힘

-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동시에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우디 시장에 할당할 계획이라 덧붙임
- 최근 PIF는 골드만삭스 외에도 이탈리아의 SACE와 30억불 규모의 신용지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4 건설시장 동향

##### ○ 네옴 트로제나 방문객 센터 3월 입찰 마감<sup>(MEED 2.25)</sup>

- 네옴은 트로제나 내 게이트웨이 클러스터(Gateway Cluster)에 위치한 미라지 방문객 센터(Mirage Visitor Centre)의 주요 시공에 대한 입찰을 3월 중순 마감할 예정
- 동 입찰은 2024.8월 공고되었으며, 당초 마감일은 2.24일이었음
- 해당 프로젝트는 개발지역 저지대에 위치한 환승 허브로 방문객들은 자동화된 차량을 이용해 도착한 후, 터널을 통과하여 볼트(Vault)를 지나 트로제나의 다양한 목적지로 이동하는 푸니쿨라로 환승하게 될 예정
- 동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는 미국의 Jacobs와 레바논의 Dar Al-Handasah이며, PMC는 Bechtel이 맡음
- 2023.3월 MEED는 네옴이 미라지 방문객 센터 개발의 관심기업을 파악중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달 초 트로제나 리조트 내 볼트(Vault)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들이 입찰을 제출했다고 보도함
- 한편, 볼트 건설을 위한 입찰은 6.11일 공고되었으며, 입찰은 2월 첫째 주에 마감한 것으로 알려짐
- 트로제나는 2029년 아시안 동계게임 개최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올해 1월 네옴은 스키 빌리지 프로젝트의 콘크리트 공사를

2.05억불 규모에 Abdulmohsen Altamimi Group과 Batco JV와 계약 체결했으며, 네옴은 현재 일반 건설공사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주재국 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추진 동향<sup>(MEED 2.28)</sup>

- 사우디에서 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며, 스폰서는 이 시설이 Tier 4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및 건설될 것이라고 밝힘
- Built Industrial Company는 지난해 Shaker Consultancy와 설계 및 감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Built Industrial Company는 동 프로젝트의 스폰서 중 하나로 정부기관이나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계획 중인 데이터센터 시설은 여러 개 장소에 구축될 예정이며, IT 부하 용량이 1GW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 미국의 Uptime Institute에 따르면, Tier 4 데이터센터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낮은 등급의 데이터센터보다 더 높은 내결함성을 제공해 장비 고장이나 분배 경로의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예비 용량과 분배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주재국은 여러 위치에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다수 계획되고 있는데, ICS Arabia는 중국의 Lumaotong Group 및 China Mobile International과의 JV를 통해 총 19억불을 투자해 사우디 내 3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해당 시설(Desert Dragon)은 Tier 3 수준의 인증을 받을 예정임
- 2024.3월, 미국의 AWS는 2026년까지 주재국에 신규 AWS Region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사우디 내 50억불 이상 투자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동 시설은 3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저지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임
- 또한, 2023.5월, PIF는 미국의 DigitalBridge와 협력하여 사우디 및 GCC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초기에는 데이터센터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뒤, 향후 거대 통신 타워, 광섬유, 소형 셀, 엣지 인프라 등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 부문으로 확장할 예정임

- 끝으로 DataVolt는 네옴 옥사곤에서 1.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초기 투자비용만 약 50억 달러로 예상됨
- 사우디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디지털 경제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며,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들이 국가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삼성물산, Nesma 등과 킹살만 국제공항 협력 MoU 체결**<sup>(MEED 2.28)</sup>

- 사우디 대표 건설사인 Nesma & Partners는 리야드의 킹 살만 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입찰 참여를 위하여 삼성물산, 튀르키예의 Limak, Al-Ayuni Investment & Contracting과 협력할 예정
- 이번 MoU에는 Nesma & Partners의 CEO Samer Abdul Samad, 삼성물산 사우디법인의 부사장 이상용, Limak 사우디법인의 총괄 매니저 Fatih Yurthan Cevik, Al-Ayuni Investment & Contracting의 Deputy CEO Hamad Al-Ayuni가 참여해 서명함

○ **퀴디아 와디 브릿지 RFQ 제출 기한 연장**<sup>(MEED 2.28)</sup>

- Qiddiya Investment Company (QIC)는 와디 위에 건설될 교량의 Design-Build에 대한 RFQ를 지난 9월 공고했으며, 2024.12.25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4.7일까지로 연장함
- 동 프로젝트는 연장 260m의 왕복 2차선 교량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하며, 퀴디아의 Uptown South (District 18)의 퀴디아 외곽순환 도로의 일부로 e-스포츠 구역 동쪽에 위치할 예정
- 한편, QIC는 웹사이트를 통해 퀴디아 개발 프로젝트의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여러 프로젝트가 주요 공정 진행중으로 Six Flags Qiddiya City 프로젝트는 전체 건설공사의 87%가 완료되었고, Aquarabia 테마파크는 84%, 골프장 건설은 77%, 1km 연장의 첫 번째 교량 공사는 현재 99% 완료된 상태라고 밝힘

○ **알울라 Monolith 리조트 인프라 패키지 입찰 공고**<sup>(MEED 3.3)</sup>

- PIF의 자회사 DDC (Destinations Development Company)의 지난해

12.31일 입찰을 공고한 Al-Ula 지역의 Monolith 리조트 인프라 패키지 6a와 6b의 입찰이 3.9일 마감 예정임

- 패키지 6a의 작업 범위는 23km 이상의 도로와 교량 건설, 프로젝트와 Al-Ula의 Route 375를 연결하는 기타 관련 공사를 포함하고, 패키지 6b는 약 6km의 도로, 굴착 터널 및 기타 관련 인프라 건설을 포함함
- 프로젝트 W라고도 불리는 Monolith 리조트 개발은 절벽 위에 1,000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과 관련 인프라 공사를 포함하며, 리조트에는 스파, 야외극장, 승마장, 워터파크, 힐탑 전망대, 스포츠센터, 증강 및 가상 현실시설, 천문대,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리야드 메트로 7호선 참여 컨소시엄 변동**<sup>(MEED 3.4)</sup>

- 리야드 메트로 7호선 프로젝트에 입찰 참여 예정이던 컨소시엄 일부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짐
- 프로젝트에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프로젝트 입찰을 계획하는 컨소시엄은 다음과 같음
  - Alstom (프랑스), FCC (스페인), Freysinnet Contracting (로컬), WeBuild (이탈리아), Nesma (로컬)
  - Siemens (독일), 삼성물산, Alayuni (로컬)
  - Hitachi Rail (일본), OHLA (스페인), Almabani (로컬), Albawani (로컬)
  - CRRC (중국), Mapa (튀르키예), Limak (튀르키예)
- 리야드 왕립위원회(RCRC)는 Design-Build로 추진하는 동 프로젝트의 제안요청서(RFP)를 지난 9월에 공고했으며 3.10일 마감 예정이라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Alstom이 리딩하는 컨소시엄의 설계 컨설턴트는 Typsa, Ayesa, Aecom이고, Siemens가 리딩하는 컨소시엄의 설계 컨설턴트는 Idom, **도화**, Pini이며, Hitachi Rail이 리딩하는 컨소시엄의 설계 컨설턴트는 Sener임
- 동 프로젝트는 Qiddiya Entertainment City, King Abdullah International Gardens, King Salman Park, Misk City, Diriyah Gate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은 약 65km이며, 이 중 47km는 지하고 19km는 지상

으로 건설될 예정이고, 역사는 총 19개로 14개 역사는 지하에 5개 역사는 지상에 건설될 예정

○ 메디나 BRT PPP 프로젝트 입찰 평가중<sup>(MEED 3.4)</sup>

- Al-Madinah Region Development Authority (MDA)이 NCP를 통해 진행중인 지난해 11월 입찰을 마감한 메디나 Bus Rapid Rransit (BRT) 네트워크 개발 및 운영 계약의 입찰이 평가중
- 동 프로젝트 범위에는 자금 조달, 디포(Depot), 롤링 스톡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조달, 버스차량 운영, 유지관리 및 요금 징수 등 포함
-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의 입찰에는 프랑스의 RATP Dev와 로컬 Saptco 컨소시엄, 영국의 National Express와 로컬 Hafil 컨소시엄, 프랑스의 Transdev와 Nesma 컨소시엄이 참여함
- MEED에 따르면, NCP는 지난해 2월 PPP 방식으로 추진될 메디나 BRT 프로젝트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2023.7월 43개사가 동 프로젝트에 EoI를 제출했고, 3개 컨소시엄과 7개사 개별업체가 PQ를 통과한 바 있음
- 계획된 메디나 BRT는 총 길이가 64.6km인 3개의 노선(Corridor)과 공급(Feeder) 버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당 1,800명의 승객을 수용 예상함
- 첫 번째 노선은 Ohud에서 Quba 모스크까지 16.2km 구간에 12개 정류장과 2개의 환승주차장이 있으며, 두 번째 노선은 총연장 38km로 메디나의 Prince Mohammed Bin Abdulaziz 국제공항부터 Prophet' s Mosque 를 지나 Miqat Mosque을 연결하며 24개의 정류장과 3개의 환승주차장을 포함함. 세 번째 노선은 Al-Qassim Road의 동쪽 종착역에서 시작하여 Prince Abdul Majeed Mosque까지 10.4km이고 정류장 10개와 환승 주차장을 포함함
- 동 프로젝트는 DBFOM모델로 추진 예정이며, 프로젝트 컨설턴트는 프랑스의 Egis와 Systra 컨소시엄이 참여함

○ 아브하 국제공항 PPP 프로젝트 참여사 개별미팅 실시<sup>(MEED 3.5)</sup>

- Matarat은 아브하 국제공항의 신규 터미널 빌딩 및 관련 시설 개발 및 운영 프로젝트 관련, 지난주 참여사들과 개별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4.22일까지 RFP를 접수받을 예정

- 현재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의 팀은 다음과 같음
    - GMR Airports (인도)
    - Mada International Holding (로컬), TAV Airports Holding
    - Skilled Engineers Contracting (로컬), Limak Insaat (튀르키예), 인천국제공항공사, Dar Al-Handasah Consultants (레바논), Obermeyer Middle East (독일/UAE)
    - Vision International Investment Company (로컬), Asyad Holding (로컬), DAA International (아일랜드)
  - 동 프로젝트의 1단계는 공항을 현재 10,500m<sup>2</sup>에서 65,000m<sup>2</sup>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계약 범위는 현재 활주로에서 고속 출구 활주로, 신규 터미널을 위한 에이프런, 신규 터미널 건물로 가는 도로, 신규 주차장이 포함되며 변전소 확장 및 신규 하수 처리 시설과 같은 시설도 포함함
  - 2028년에 완공 예정인 동 프로젝트는 BTO (Build-Transfer-Operate) 모델로 추진되며, 설계, 파이낸싱, 시공, 운영을 포함함
- **킹살만 국제공항 제3활주로 개발 Design-Build 입찰 공고**<sup>(MEED 3.5)</sup>
- KSIADC는 2월 마지막 주에 공고한 킹살만 국제공항의 제3활주로 개발 Design-Build 입찰이 3.24일 마감될 예정
  - 제3활주로는 현재 킹 칼리드 국제공항의 기존 2개 활주로에 추가되며, 향후 킹살만 국제공항의 일부로 통합될 예정임
  - MEED는 동 프로젝트에 대한 PQ 서류를 1.18일까지 접수 마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한편, 동 공항의 마스터플랜은 8개 시설로 구분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conic Terminal
    - Terminal 6
    - Private aviation terminal
    - Central runway & Temporary apron
    - Hangars
    - Landside Transport
    - Cargo buildings
    - Real estate
  - 동 프로젝트는 영국의 Foster + Partners가 공항의 터미널 및 6개



활주로, 부동산 개발을 포함하는 마스터플랜 설계, 미국의 Jacobs가 신규 활주로 설계 및 마스터플랜 전문 컨설턴트, 영국의 Mace가 딜리버리 파트너, 로컬의 Nera가 공역 설계 컨설턴트로 선정됨

○ 아시르 ~ 지잔 고속도로 PPP 컨소시엄 구성 동향<sup>(MEED 3.6)</sup>

- Asir-Jizan Highway PPP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한창 진행중
- MEED는 지난 1월 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RGA (Roads General Authority), NCP, Aseer Development Authority가 EoI 제출 기업들과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PPP 파이프라인에서 계획된 4개 고속도로 계획 중 하나로 DBFOM 모델로 30년간 개발될 예정이며, 총연장 136km에 왕복 6차선, 전체 18km의 57개 교량, 전체 9km의 터널 11개, 인터섹션 6개 등 건설을 포함하며, 구간은 Aseer의 Al-Farah에서 시작해서 Jizan을 거쳐 홍해까지 이어지는 노선임
-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3월 초부터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있으며, 이미 구성됐거나 진행중인 컨소시엄은 다음과 같이 알려짐
  - Lamar Holding (바레인/로컬)
  - Mada Holding (로컬) / L&T (인도)
  - Nesma & Partners (로컬) / Limak Holding (터키)
  - Plenary (호주) / 삼성물산(한국)
  - Vision Invest (로컬) / 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중국)
- 지난해 EoI를 제출한 기업들은 국내외 투자자, 컨설턴트, 디벨로퍼 및 시공사 구성으로 총 69개사 중 32개사는 로컬업체, 나머지 37개사는 한국, 중국, 유럽, 미국, 튀르키예, 기타 중동 업체로 구성되었음
- MEED Projects는 동 프로젝트의 EPC 비용을 약 25억 불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 소식통은 이러한 추정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주장함

○ SPPC, 5건 태양광 및 풍력 IPP 2Q까지 RFP 공고 예상<sup>(MEED 3.7)</sup>

- SPPC는 올해 2분기까지 4건의 태양광과 1건의 풍력 IPP 프로젝트에 대한 RFP를 공고할 예정
- SPPC는 지난 1월 말 NREP 6라운드 태양광 IPP에 대한 PQ 통과 기업을 초청하여 현장실사를 개최한 바 있음

- 4건의 태양광 IPP는 총 3,000MW 용량을 갖출 예정임
- 한편, NREP 6라운드는 4건의 태양광 IPP 외에도 1,500MW의 Dawadmi 풍력 IPP도 포함함

○ Aljomaih 컨소, IWTP PPP 대출기관과 협의중<sup>(MEED 3.7)</sup>

- SWPC의 22억불 규모 IWTP PPP 프로젝트를 수주한 로컬의 Aljomaih Energy & Water, Nesma, Buhur for Investment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현재 대출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동 프로젝트는 주재국 동부의 주베일에서 카심의 부라이다까지 587km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65만 $m^3$ /day를 송수하는 IWTP 프로젝트로 주재국 내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로 추진하는 IWTP 프로젝트임
- 해당 컨소시움은 SR3.59468/ $m^3$ 을 개발 단가로 제안해 SR5.04214/ $m^3$ 를 제안한 경쟁 컨소시움인 Vision Invset/Taqa 컨소시움을 제치고 3월 첫째주에 수주함
- 한편, SWPC의 송수 계약에 따른 의무는 사우디 정부를 대신해 재무부가 신용보증으로 지원할 예정임